

##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첫 보고 시점 조작

9시 30분→10시로...컨트롤타워 기관도 안행부로 불법 변경  
청와대서 전산파일·캐비닛 자료 발견...검찰 수사 의뢰 방침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에서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어제는 안보실 공유 폴더 전산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 자료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됐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다"며 "그러나 이번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사건 관련 최초 상황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부터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점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로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대통령 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 필증을 첨부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절차 등을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자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작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잠당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종석기자 tuim@kwangju.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청와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과 어민 등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는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임 행진곡' 제창도 청와대서 막았다

박근혜 정부 이병기 실장

"국가 정체성과 맞지 않다"

"편향성 국민에 적극 알려라"

박근혜 정부 시절 5·18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청와대 측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노래' '노래 가사의 편향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는데 노력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공개한 '2015~2016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

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 따르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서 거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5년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당시 광주·전남 지역사회 뿐 아니라 야당에서 강력하게 제창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여론 일부에서도 제창 허용 여론이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지시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24일에 작성된 문건에서 이전 실장은 "국회의장 및 여권 일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허용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가 입장을 확실히 하라"면서 "여권 내 분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5·18 행사가 열리기 사흘 전 이전 실장은 "광주에서 열리는 5·18 기념행사에서의 제창 문제로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파행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 것 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홍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5월16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 문건에서 그는 "일단 이 노래의 가사에 숨은 뜻이 국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편향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잘 알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5월 광주의 이품을 무시한 채, 오직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 박근혜 정부의 후안무치함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 "3조여원 정부 주택기금으로 승승장구 임대료 폭탄·하자 아파트로 서민 울려" '부영' 아파트 임대사업 여야 없이 성토

국감 초점

12일 막이 오른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주택 임대사업을 벌이는 '부영'을 난타했다. 비판은 정부 기금으로 용자받아 아파트를 지어 임대한 뒤 법정 상한선에 이르는 임대료 인상을 매년 밀어붙여 서민들 등골을 휘게 한다는 점, 최근 경기도 부영아파트(1300여세대)에 접수된 9만건의 하자신청 등 아파트 부실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부영은 지난 1983년 이후 정부로부터 수십조원의 기금을 지원받는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 사업으로 승승장구해 왔다. 최근 10년동안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용자받은 금액만 3조6000억원"이라며 "그런데도 부영은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거부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부영과 부영계열 임대주택회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2017년 8~9월 실시), 부영과 부영계열사는 지난 5년간 연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다른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1.76%는 물론 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료 인상률 2.44%와 비교해도 지나치

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부영과 부영 계열사는 특히 광주에 임대 아파트 세입자에게는 최근 5년간 매년 꼬박꼬박 임대료를 5%씩 인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임대주택법(44조)에 따라 최대 인상 폭이 연 5%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가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인상시킨 것이다.

수개월 전부터 부영의 임대료 폭탄 인상을 문제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거듭 자료를 내 "국토부 장관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일관된 정책 집행이 부영의 임대료 폭탄인상과 하자 투성이 아파트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는데, 최근 불이익을 받은 부영의 경우 최근 2년사이 총 7건에 10점의 부실시공 벌점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불이익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예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감에서도 부영아파트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감을 통해 부실시공 및 임대료 폭탄 인상 등 부적격 업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제한하자는 이른바 '부영법'에 힘이 실릴 것인지도 주목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3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 2017. 10. 21(토) 09:00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화 : 062) 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박봉순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든 무릎 굽 가랏!!  
일시 : 10월 15일(일) 9:3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62) 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노동일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된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십 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